

칼럼

장기채 주필



실버들이 당당한 사회가 더 행복하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노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다. 인간 생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노후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웃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무위도사하며 세월을 원망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나이를 먹었다는 핑계를 앞세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헤쳐는 안 된다.

설령 돈벌이는 변변치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실버스니키가 밀려오고 있다.

고령화라는 인구 재앙이 한국에 다가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54년, 영국은 99년, 미국은 90년, 독일은 77년 소요되었고 일본은 35년 걸렸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154년 동안 달려온 길을 우리는 26년 만에 초고속 질주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계진 기록도 같이 치우 태세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데도 고령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2050년경 한국은 전체소비자 3명 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이다.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에 관한 압축성장은 희소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령사회 진입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의미하고 저성장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20대 인구는 1994년, 30대 인구는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60대 이상 인구만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익숙한 길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가보지 않은 길은 쉽게 가려 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늘어난 세월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데 있다. 그런 길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이에 뭐가 두

렵다는 말인가.

설령 그 일에 도전해 뜻을 이루지 못하면 또 어떤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아무도 자신의 삶에 정답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최근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못한 1위인 것이 여럿 발표되었다. 학부보 부담 교육비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그리고 노령화 속도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주목해 볼만한 1위 항목이다.

또한 불황속에서도 노인들 먼저 배려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노인복지 재정 지출은 중국 중 가장 적은 편이다. 노후 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수명 80세 시대에 접어들어 고령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경력과 인생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마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시대 실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은발의 현역'이 더 행복한 이유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社說

심각한 스마트폰 과의존현상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19.1%를 기록했다. 5명 중 1명 꼴이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 과의존도는 소폭 감소했으나 유아동과 60대 이상 어르신 과의존도가 상승했다는 것. 영아의 경우에도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과의존 위험군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 1.8%p 증가와 60대 1.3%p 증가로 파악돼, 해당 계층의 과의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지난 2015년 31.8%에서 지난해 29.3%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과의존 위험군 상승폭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의 감소 추세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추진한 체험형 예방 교육, ICT 진로직성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과제 추진의 결과로 과의존률 상승은 평가했다.

반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크게 상승한 '유·아동'과 '60대'를 분석한 결과,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 부모에 비해 맞벌이 부모의 유·아동 자녀 과의존 위험이 높아 스마트폰의 양극 활용에서의 차이도 확인됐다.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일 경우, 유·아동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3.8%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특성, 과의존 위험군의 콘텐츠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위험성 인식, 사용습관 조절 등 바른 사용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淵 澄 取 映

淵 澄 取 映

▷ 뜻: 못이 맑아서 비치는, 군자(君子)의 마음을 말한 것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깨끗하고 소중한 한표 우리의 양심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앵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난 19일은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였다. 이제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온 대지를 감쌀 날이 멀지 않았다. 신록의 푸르른 계절이 우리곁으로 성큼 다가온 기분이다.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지역 농·축·낙·산림조합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을 직접 조합원의

손으로 뽑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과거에 실시된 대부분의 각종 조합장선거가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는 등 불법·타락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돈으로 표를 사거나 흑색선전·인신공격 등 과거의 낡은 행태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직성, 경영능력 및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과 비전 대결의 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금품수수행위가 있으면 신고·제보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로서 조합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비방 등 과열 혼탁선거를 하는 옳지 못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될 경우 조합이나 지역의 앞날은 밝지 못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후보자와의 친분이나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고의식을 떨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품,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를 양심에 담아 투표에 꼭 참여하여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 원선거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우정 / 순천시선관위 지도담당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